

폭설에도…‘내 집앞 눈치우기’는 남의 일

광주 사흘간 26cm 쌓여…제설팀 밤샘 작업에도 역부족
‘눈 치우기 조례’ 강제성 없어…이면도로 빙판길 낙상위험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골목길 제설작업이 훨씬 빠를 텐데요.”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골목길에서 만난 북구청 제설팀은 한숨을 내쉬었다. 23~25일 사흘간 광주지역에 최고 25.7cm의 폭설이 내리자 북구를 비롯한 각 구청 제설팀들은 밤을 지새우며 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설팀들은 이날까지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주택 앞이나 골목길 등 주민들이 지우도록 돼 있는 이면도로는 여전히 빙판길로 남아 있어 낙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주택 앞 제설작업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년 겨울이면 눈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잇따르지만 조례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로 불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남구가 지난 2005년 광주 최초로 도입한 뒤 다른 자치구들이 2006~2007년 사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조례는 이면도로와 보도의 제설·제빙작업 책임자를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눈이 쌓이면 조례에 따라 건축물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전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 또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 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

각 자치구는 이 같은 내용을 매년 겨울 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시민들이 주택이나 상가 출입구만을 생색내기 수준으로 치우거나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들은 치운 눈을 쌓아둘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 앞에 쌓인 눈을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으로 밀어내면서 되레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북구 제설팀 관계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삼, 빗자루 등의 도구를 사용해 차량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가장자리나 골터 등에 옮겨 쌓아두면 된다”며 “주민들이 쌓아둔 눈 더미는 구청에서 차량을 이용해 매립장으로 운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광주시 5개 자치구 소속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등에 소속된 회원 4540여명이 제설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겨울 잘 이겨내렴” 26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과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북구 삼각산에 올라 폭설로 먹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생동물들 위해 친환경사료를 뿌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눈에 갇혀 굶을라...야생동물 통행로에 먹이 살포

시민 100여명 폭설에 굶주린 멧돼지·샐·참매 보호 활동

“굶어 죽지도 말고, 도심으로 내려와 피해주지도 말고...”

26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자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양손에는 저마다 당근·고구마, 친환경사료가 들려 있었다. 이들이 발목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고 어등산을 찾은 이유는 이곳에 살고 있는 샐, 참매, 말뚝가리,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였다.

겨울철이라 먹잇감을 구하기 힘든데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먹이 활동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먹이라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도심으로 내려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이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매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해 1500만원의 주민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먹이 할

당이 곤란한 겨울철에는 산에서 내려와 민가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신고가 적지않게 접수되고 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이날 권성현(53)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지부장을 비롯한 시민과 공무원 100여명은 10kg들이 당근 10상자, 고구마 10상자(20kg들이), 친환경사료 35포대(25kg들이)를 어등산 곳곳에 놓아줬다. 육한기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는 어등산뿐만 아니라 남구 양과동 건지산과 북구 장등동 삼각동 일원에서도 함께 진행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폭설 피해 45억

비닐하우스·축사 등 붕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내린 폭설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 규모가 대략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비닐하우스 17동이 파손되고, 교통사고와 낙상 사고가 잇따랐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접수된 폭설 피해는 나주시 등 11개 시·군 비닐하우스 386동(18만1546㎡) 파손, 화순군 등 5개 시·군 72동(6만489㎡) 축사 및 부대시설 파손, 가축 수천여마리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각각 19억원, 25억원, 1500만원 등 모두 44억2500여만원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폭설로 도로 8개 노선 43.0km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했으며, 목포시 온금동 아리랑고개와 구례 효곡~매재구간과 곡성 고달~산동 구간이 26일 오전, 목포시 유달산·부주산 일주도로, 석현동 과선교가 같은 날 오후 각각 개통됐다.

다만 겨울철 상시 통제구간인 지방도 861호선 구례 천은사에서 전북 도계 16km 구간과 진도 군도 15호선 첨찰산 2.5km 구간은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용 시설 피해의 경우 그 규모가 시·군당 3억원 이상이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군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폭설로 비닐하우스 17동(동구 6동, 남구 2동, 광산 9동)이 파손됐다.

/윤현석기자chadol@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녘 21:04

해질녘 17:55

달 뜨기 09:14

내일 비소식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7	보성	맑음	-5/6
목포	맑음	-2/7	순천	맑음	-2/8
여수	맑음	1/6	영광	맑음	-5/6
나주	맑음	-5/7	진도	맑음	-2/8
완도	맑음	-1/8	전주	맑음	-5/6
강진	맑음	-5/6	군산	맑음	-5/5
해남	맑음	-4/7	남원	맑음	-7/6
장성	맑음	-5/6	축산도	맑음	3/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면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0.5~1.5		
남부	면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서)	서~북서 1.0~1.5	남서~서 0.5~1.5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00	09:18
	16:34	21:46
여수	11:13	04:50
	23:22	17:12

◇주간 날씨

28(목)	29(금)	30(토)	31(일)	2/1(월)	2/2(화)	3/3(수)
1/6	3/5	2/6	1/6	-2/4	-3/4	-3/5

전남 초등학교사 女 합격률 男 추월

3년만에...380명중 50.26%

전남 초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전남교육청은 26일 2016학년도 전남 초등학교 교사 입학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38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191명(50.26%), 남성은 189명(49.74%)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남성 합격자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번 입학시험에서는 남성 합격자 비율 50%대가 무너졌다.

2013년에는 남성의 비율이 61.18%를 차지했으며 2014년 65.01%, 2015년에

는 53.57%로 여자 합격자보다 많았다.

전남은 낙도와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남성 합격자가 많았지만, 최근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여성 지원자가 몰려 3년간 유지되던 남초(男超) 현상이 꺾였다.

반면, 광주는 최종 합격자 19명 가운데 남성 6명(31.6%), 여성 13명(68.4%)으로 여성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대를 졸업하는 자원 가운데 여성의 숫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은데다 지원자도 늘어 상대적으로 남성 합격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오염 취약지 특별 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 특별 감시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감시는 영산강환경청과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영산강환경청은 이 기간 환경오염 신고창구 전화(국번 없이 128번)를 운영하며 공단주변과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처

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오염 우려 지역 순찰도 강화한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영산강환경청은 전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번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 ‘전·중·후’ 등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업무를 추진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가격은 500만원대

충분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호수지정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383-6400

아름초, 중앙초, 정광초,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